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혼합 음료를 판매한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
면서 마약 범죄가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실제로 마약 범죄는 2022년 10,331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는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청소년
마약 범죄도 증가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2023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단속·재활 조치를 강화했고, 서울시 교육청과 보건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였고, 경찰청도 온라인 거래와 밀수를 포함한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마약 퇴치 활동에 미흡한 면도 적지 않은데,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가운데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23년 기준 58개나 되며,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23년에만 39개 학교에서 실시했을 뿐입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하고자 합니다.
-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청소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의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